

2004 지방공기업의 운영방향

공 호 식

행정자치부 경영지원과 공기업제도팀장

I. 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지난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이후 상·하수도, 공공의료, 도시철도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영평가·진단 등 제도개선과 함께 구조조정과 연계한 경영혁신 제도를 도입하여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지방공기업이 흑자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매년 2-3천억원대에 이르던 당기순손실을 작년도에는 수지균형 수준에 육박하는 4억원대(지방공기업 경영실적 자

료 1 참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사례, 민간영역 침해논란 등이 계속되고 이론적 연구와 실무·이론 연계가 미흡한 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학회를 설립, 관·학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날을 『지방공기업의 날』로 지정하여 지난 1. 29 제1회 지방공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우수 경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방공기업 근무직원 상호간에 경영정보를 교환하는 지방공기업 가족의 축제 한마당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자치단체 공동활용 전산프로그램인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개발, 2003년 1월부터 5개월간 대전광역시 5개 구청과 경기도 이천시, 충북 괴산군, 충남 천안시 등 8개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2003년도말 현재 164개 자치단체에 세외수입표준 프로그램을 보급 완료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자치단체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우리부와 자치단체(시군구는 자율운영)에 시도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과 합동으로 『세외수입확충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제도개선을 연구·발표하는 연구모임을 정례화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전라북도 무주에서 전국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대학교수 등 세외수입 관계자 400여명이 모여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등 6개 우수 자치단체에게 국무총리상과 부상금 등을 수여하였으며 여기서 발표된 우수사례는 연구백서로 발간하여 자치단체에 배포, 자치단체 세외수입 확충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제시된 제도개선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운영하기로 하는 등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규정(부령)을 폐지('03. 7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운영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II. 2004년 지방공기업 운영방향

1. 지방공기업 자율·책임경영체제 강화

가.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여건 조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공사·공단 설립인가권, 정관승인권 등을 이양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도록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한 데 이어 금년에는 지방예산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의 예산·결산지침, 공사·공단채 발행승인권 등 각종 재정운영 관련권한을 이양하되 이와 같은 권한은 성격에 따라 규칙·훈령·예규·편람 등의 형식으로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그 기준내용은 가이드북으로 설명하여 공기업 재정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해 줄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재정자율성 보장과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세미나·워크숍·토론회 등 연찬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의료원 등 지방공기업 분야별 현안사항을 연구,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지방공기업의 예·결산 및 회계처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자동화를 추진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전반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함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실화로 책임경영 강화

그동안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법령정비 등 제도적 개선과 병행하여 경영평가지표를 지속

보완하고 있으나 공기업 규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좌우되고 평가의 목적인 환류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에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설정 및 동태평가의 비중강화, 합리적인 평가군 설정, 유능한 지방대학 교수의 평가단 영입 등을 통하여 경영평가의 타당성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경영평가지표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경영개선실적에 대한 평가비율의 비중을 높여 조직의 규모보다는 발전가능성에 대한 동태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중복성이 있는 지표를 통·폐합하여 전체적으로 지표를 단순화하고 비계량지표 등급구간별 편차를 축소해 나가고 둘째, 경영평가의 대상평가군을 전년대와 같이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도시개발, 지하철, 공단, 의료원, 기타공사 등 사업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부평가군을 인구 및 예산규모,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셋째, 경영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자치단체의 참여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전체 외부전문가의 20% 정도는 시·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의 경영평가는 경영평가의 기본방향, 평가대상 및 경영평가기관, 경영평가지표 등을 명시한 경영평가지침을 3월말까지 시·도에 통보한 후, 4~8월간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10월경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결과를 시달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가~마급의 5단계로 등급을 부

여하여, 등급에 따라 임원은 150~450%, 직원은 100~300%범위 내에서 기관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다. 실효성있는 경영진단 실시

2004년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은 금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에 의해 해당공기업을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함으로써 해당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同 제도가 단순한 경영자 인사조치, 조직규모 축소 등 문책성 진단보다는 명실상부한 “부실공기업 경영클리닉”이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실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부실공기업의 회생력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영개선명령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실태의 확인과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경영개선명령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지난 1999. 1월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2개 부실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공기업 대표자 2명을 해임하고, 정원의 392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상당수 조직을 개편 등의 경영개선조치를 취한 바 있다.

라. 경영공시제도의 정착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재무제표 등 주요정보를 홈페이지 등 주요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시제도는 공개기준이 명확하게 정하여지지 않아 일부 공기업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영공시제도를 통한 주민의 지방공기업 운영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상하수도, 지하철, 의료원 등 지방공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공시자료의 규격화, 공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공사·공단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연계, 경영성과를 게시토록 유도하는 한편, 공시사항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시항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시켜나갈 계획이다.

마. 신설공기업 운영 내실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지방공기업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영혁신제도의 도입이행여부, 조직 및 인력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기업 설립시부터 각종 제도나 규정숙지 미흡으로 인한 운영미숙과 부실경영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2003년도 이

후 설립 공기업에 대하여 금년 3월중에 지도·점검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공사·공단의 출자법인의 경영부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의 초과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체없이 주식의 처분,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출자법인에 대한 검사결과 부실경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청구 등 강력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지속추진

지방공기업의 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은 그동안 정부주도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제도를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2003년도부터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자율경영혁신체제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 스스로가 자체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적인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채 및 공사채 발행 요구액 삭감 등 재정패널티 적용방안 등을 강구하며, 추진실적이 극히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책임규명과 금년도 평가결과 등급구간을 하향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2. 주요시책사업의 추진

가.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사업은 167개 시·군단위의 직영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물 산업육성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사업의 공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화추진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7개 특별·광역시의 지방상수도를 단계별로 공사로 전환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는 광역화를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상수도 투자재원확충과 사용자간 형평성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요금현실화는 인센티브 반영비율 상향조정, 경영평가와 연계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고, 노후·불량관 교체, 관망도 전산화,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 원초적 물 낭비의 감소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도 사업비 중 일부 수요를 시책사업비로 지원하여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공정한 요금부과 및 정확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파악으로 경영효율화 도모를 위하여 현재 관청회계방식으로 운영되는 65개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는 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지하철 경영의 개선

지하철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으로 현재 서울(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대구, 인천, 광주 등 5개 공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중 광주지하철공사는 금년 4월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하철은 건설비용의 과다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매년 큰 폭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부채의 원리금상환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체계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하철 부채와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구분하여 건설부채는 건설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상향조정과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상환토록 하고 운영부채는 당해 지방공사 책임하에 해결해 나가되, 원가의 50%대에 불과한 지하철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비의 국비지원을 상향조정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건설부채를 점차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하철요금 현실화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요금을 단시간 내에 현실화하기에는 서민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한 실정으로, 년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

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기능강화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보호환자, 저소득영세서민, 행려환자 및 법정전염병환자 등을 중점 진료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34개의료원이 설립·운영 중에 있다. 이들 의료원은 무의탁환자, 저소득층 환자 위주의 진료특성상 수익의 한계와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격차 등으로 인한 수익확보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방공사의료원이 경영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의료원과 보건소와의 진료연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협의 추진하고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가 지방공사의료원에 증원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낙후된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병동 신설을 위해 지난해까지 12개의료원에 국비 1,175억원과 지방비 1,663억원 등 총 2,838억원의 건축비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 데 이어 2004년에도 6개의료원에 136억원의 이

전신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래문화 변화로 증가하는 장의시설 이용수요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의 장의예식장 현대화계획에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영세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한편,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비와 영상저장장치(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구입비 48억원을 지원하여 진료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의료원의 진료수익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라. 지방세외수입의 확충

1)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전산화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지난해 도입한 세외수입의 업무전산화는 그동안 수작업 처리에 의존했던 부과·징수·채납관리 업무를 전산화로 대체하면서 업무행태의 개선은 물론 업무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부에서는 금년에도 기 보급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외수입 전산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2003년도에 미보급한 86개 자치단체 중 자체활용 시스템이 노후되거나 신규보급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원 보급하여 주고, 나머지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기 보급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과 세외수입관련자료의 통합활

용을 위해 고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 자치단체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성, 전국 규모의 『세외수입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치단체간에는 물론 중앙부처간 정보연계 표준을 통한 통계분석 및 정책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 수작업 처리하고 있는 부과·징수업무를 전산화하여 징수율 제고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납부자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서면고지서와는 별도로 e-mail 또는 핸드폰으로 부과 및 체납내역을 자동 통보, 자율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2) 수수료·사용료 원가시스템 개발 및 요율정보 공유체제 구축

지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추진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금년에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부과하면서 건수가 많고 징수금액이 큰 수수료를 대상으로 항목별 자동원가 산정 시스템을 제공하여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고 전 자치단체의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자치단체별 연구체계구축으로 자주재 원 확충노력 전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의 관심

사에 대해서는 토론과 연구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세외수입확충 연구모임』을 기초 자치단체까지 확대운영토록 하여, 광역단체는 전년도와 같이 우리부와 협의조정하여 부여된 과제를 연구하고,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단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시·군·구까지 확대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도에서도 해당 시·군·구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세외수입관련 모든 공무원들이 지방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부에서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부상금 지급을 기초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4) 신규 세외수입원의 적극 발굴로 세외 수입 확충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업수행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국민의 추가세금 부담이나 자치단체의 추가재정 부담 없이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세수확충이 가능한 분야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면, 시금고 유희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과 금융기관의 BC 카드사와 새로운 법인제휴카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현금 캐쉬백 기능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권장해 나가겠다. 또한, 국·공유재산 매각시 당연 수익제

약 대상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세수를 확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누수되는 세수가 없도록 권장해 나가겠다.

이와 병행하여 현재 제증명 발급 등 무료 사무를 일제히 조사, 그 처리비용을 분석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국가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과태료·범칙금 등에 대해 지방수입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나갈 계획이다.

5) 체납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전 자치단체의 전산화와 온라인시스템이 연결되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조회 등이 가능하므로 체납자를 선별하여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중심으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과태료·과징금을 법이 정한 절차 내에서 엄격히 부과, 징수하고 체납액은 반드시 강제징수절차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입확대와 건전지방재정을 확립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정리를 위한 우수추진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파급시키는 등 비교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 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

1) 공유재산의 관리·활용 극대화

2004년에는 공유재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서 토지합필 및 지목변경 등을 통한 자산가치의 상승과 영구시설물 설치범위를 확대하여 토지의 활용도 제고 등 효율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또한 예정가격 책정시 감정가를 하한으로 시가를 감안토록 하여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 및 산업·연구시설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2) 공유재산관리 전문인력 육성

지방행정 수행의 주요한 물적수단인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임대·매각 등 그 업무가 과중하여 인사이드가 잦으며, 그 결과 담당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공유재산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 우수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관리마인드를 고취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2000. 10. 20.)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활용을 통한 수입 증대 및 지출 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거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예산성과금제를 활성화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욕을 고취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할 예정이다.

3) 물품관리의 효율화 추진

현재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바, 이에 대비하여 발생주의 및 감가상각 개념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체계를 정립할 것이며,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재물조사 실시권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율권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 비중이 큰 고가물품 위주로 정수물품을 재지정하고 물품분류번호의 재구성, 내구년수의 조정 등 제도정비와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력 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 지방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가칭) 제정 추진

현재 예산·회계·채권 및 공유재산, 물품이 단일법령에 혼재되고 내용이 방대하여 개별적 인식이 곤란한 상황이다. 국가의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별도의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 취득·관리·처분 등 사안이 복잡·다양하여 국가처럼 별도의 법체계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를 발췌하여 지방공유

재산및물품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III. 맺음말

올해에도 우리 지방공기업은 여러 사업분야에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공기업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경영혁신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화합과 협력의 생산적 신노사문화를 토대로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자료 1〉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2002년말현재, 단위 : 억원)

공기업명	자 산	부 채 (부채비율)	자 본	경영성과	예산액
계	577,562	207,599 (56.1)	369,963	△4	214,848
소 계 (직영기업)	361,387	109,617 (43.5)	251,770	8,275	136,562
상 수 도	172,062	33,260 (24.0)	138,802	2,465	46,393
하 수 도	88,771	12,431 (16.3)	76,340	△402	19,235
공영개발	37,706	13,219 (54.0)	24,487	5,362	24,616
지역개발기금	62,848	50,707 (417.7)	12,141	850	46,318
소 계 (공사·공단)	216,175	97,982 (82.9)	118,193	△8,279	78,286
지하철공사	135,619	67,940 (100.4)	67,679	△8,967	33,627
지방공사의료원	6,706	3,115 (86.7)	3,591	△790	6,357
도시개발공사	53,770	21,236 (65.3)	32,534	1,562	26,803
시설관리공단	7,525	2,945 (64.3)	4,580	△122	7,830
주차관리공단	7	8 (-)	△1	△1	38
기타공사	9,328	617 (7.1)	8,711	△71	1,405
민관공동출자	3,220	2,121 (193.0)	1,099	110	2,226

※ 제3섹터 : 자산 1조652, 부채 6,114, 자본 4,538, 경영성과 △464은 미포함.

〈자료 2〉

(1) 직접경영사업(194개)

지방공기업 현황(총342개)

(2003. 12. 31현재)

세부사업별	단 체 수	단 체 별
계	194	
상 수 도	102 (특·광역시 7, 시 76, 군 1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김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양주, 하남, 용인, 파주, 이천, 화성, 광주, 연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영월, 평창, 인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정선, 철원, 고성,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울진, 상주, 문경, 경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하 수 도	3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안산, 과천, 성남, 구리, 시흥, 포천, 오산, 여주, 춘천, 속초, 청주, 전주, 완주, 익산, 정읍, 목포, 순천, 나주, 영암, 경주, 구미, 경산, 창원, 진주, 진해, 김해, 제주
공영개발	40 (시도 6, 시군 34)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남, 전남(도청이전)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고양,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안성, 김포,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청주,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보령, 연기, 계룡, 익산, 목포, 순천, 광양,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지역개발 기 금	1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간접경영사업(148개)

형태별	사업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48	
지방 공사	소 계	66	
	지하철	5	서울(2), 대구, 인천, 광주
	의료원	3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이천, 안성, 포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순천, 강진, 목포,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도시개발	1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기 타	11	서울농수산물공사, 마포개발공사(서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구리시), 경기관광공사, 광주지방공사, 평택항만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태백관광개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청도공영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지자체 50% 이상 출자	4	지방공사인천터미널, 하남시개발공사, 장흥표고유통공사, 안성축산진흥공사
지방 공단	소 계	51	
	시설관리	48	서울,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용산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부산, 대구, 인천,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대전, 울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과천, 고양, 용인, 파주, 안성, 김포, 화성, 연천군, 춘천, 동해, 속초, 구미, 창원, 김해, 거제, 부산환경, 대구환경시설, 광주환경시설
	주차관리	1	청주
	기타	2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주식 회사	소 계	31	
	지자체 25~50% 미만 출자	20	부산센텀시티(주),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산관광개발(주), (주)대구전시컨벤션센터,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코다개발(주), 인천도시관광,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주)대전농수산물유통센터, (주)효원, (주)안산도시개발, 부천카툰네트워크(주), 부천무역개발(주), (주)김포캐릭터월드,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삼교호합상공원, (주)전남무역, (주)경남무역, 가온소프트(주), (주)JS소프텍
	지자체 25% 미만 출자	11	(주)테즈락스포츠, (주)티아이엔시, 한국씨이에스(주), (주)K3I, 울산일산유원지개발(주), 파주시혼합사료(주), (주)아름다운인제관광, (주)경축, (주)경북통상, 농협대구경북유통(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